

原油市場의 변화와 日本의 대응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이 자료는 日本經濟新聞이 지난 11월 26일부터 4회에 걸쳐 연재한 「전환기에 처한 原油市場」을 번역한 것이다.

작년말부터 급락하던 原油가격도 안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低水準이기는 하나, 회복기조로 전환될 것인가. OPEC (石油輸出國機構)가 지난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減産의 행방, 고정가격제의 부활방침, 야마니 石油相 更迭후의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정책방향, 歐美의 과잉재고와 先物市場의 급성장등 石油시장의 장래를 이룩하기에는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복잡한 사정이 얽힌 産油國, 消費國간의 줄다리기의 결과여하가 90년대의 原油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고민하는 OPEC

「장기계약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중요시하고 싶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는 OPEC의 일원이다. 12월 총회에서 어떠한 새로운 결의가 나오면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UAE 최대의 石油판매회사 ADNOC (아부다비國營石油會社)의 K. A. 오타이비판매부장은 신중하게 어휘를 선택하면서 기본방침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했다.

고객에 대한 안정공급과 생산량의 삭감이라고 하는 課題에 직면한 아랍에미리트의 입장은 시장점유율의 확대와 原油가격의 인상이라는 어려운 길을 추구하고, 고민하는 OPEC諸國의 현황을 상징하고 있다.

UAE의 석유정책은 온건한 수출·판매시책, 現物市場연동의 유연한 가격결정을 특색으로 하고 있으며, OPEC 13개국가중에서도 「우등생」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것이 日本으로의 최대 原油공급국으로서의 자리를 2년째 계속 확보하고 있는 原動力이 되었다. 국가수입의 80% 이상을 石油에 의존하는 아랍에미리트로서도 日本은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다.

그 아랍에미리트도 다른 많은 産油國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경제여건에 직면해 있다. 난항끝에 지난 10월에 작성된 86년 정부예산의 歳出규모는 38억 2천만달러로 前年보다 15.7% 감소하였으며, 과거 4년동안에 가장 작은 규모이다. 原油가격의 급락이 82년 이후의 재정적자 확대를 촉진시켰다.

지난 11월 20일 사우디의 페트로민으로부터 D-D 原油의 12월선적분 공급량이 24만B/D라고 통보받은 日本의 정유회사6社는 똑같이 놀라면서도 고개를 가웃거렸다. 이만한 공급량의 증가를 확약했다고 하는 것은 「사우디의 減産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6社의 구입희망량을 결정하는 三菱商社의 통상인수량은 10만B/D. 네트백가격이 싸기 때문에, 「밀쳐야 본

전」이라는 식으로 32만B/D를 요구하였던 바, 사우디측은 실제 예상량을 상회하는 물량을 제시해온 것이다.

에콰도르의 키토에서 OPEC石油委員會가 합의한 배럴당 18달러를 목표로 하는 고정가격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OPEC전체의 생산상한(현재의 1,700만B/D)을 백만B/D정도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리비아 石油相의 말). 아랍에미리트 產油量만 해도 지난 10월 이후 약 10만B/D가 감소, 약 115만B/D가 되고 있어 減産體制下에서의 생산상한인 95만B/D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현재 減産방침은 유동적이다.

사우디의 아마니石油相 更迭후 사우디와 이란의 접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우디의 파트국왕이 이란의 하메네이대통령앞으로 原油가격인상에 협력을 요청하는 親書를 보내는 등 이전부터 배럴당 28달러 목표가격을 주장하는 이란에 사우디가 동조자세를 취하게 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쿠웨이트도 세계각지에서 석유제품판매사업의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생각도 각양각색인 OPEC이지만, 장기적으로 본 原油가격에 대하여 「유력한 고객인 日本은 가격수준이 어떻게 되든지 일정량은 반드시 구입할 것이다. OPEC가 현재의 減産체제를 유지하는 한 반년에서 1년 후에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아부다비에서 들을 수 있었다.

「原油가격을 3~4년간 배럴당 15~20달러 범위에서 안정시키고 싶다」 아랍에미리트의 M. S. A. 오타이바石油相은 지난 9월 하순 日本방문시등 기회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아부다비내의 관계자들의 의견은 일치되어 있으나, 또 하나의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고 있는 유력한 產油國 두바이는 최대한의 생산(35만B/D)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두바이와의 조정과 외부적으로 OPEC 회원국과의 협조를 요구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딜레마는 OPEC내부의 不統一과 他產油國과의 긴장관계와 함께 2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정가격제부활에 대한 각국간의 결속도 한점질 벗겨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原油가격의 상승예상이 지배적이지만 低수준에서의 불안정한 등락을 다시 재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活路 모색하는 메이저

「1990년까지의 原油가격을 배럴당 15달러로 가정하고,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있다」(BP의 월터즈會長의 말). 「原油가 배럴당 15달러 이하라면 油田의 개발사업은 축소시켜 나갈 것이다」(엑슨의 가빈會長의 말). 최근 메이저 首腦의 발언은 原油의 低가격시대를 극복하려는 고민으로 가득차 있다.

70년대 후반까지 세계석유산업의 주역은 메이저였다. 油田의 탐사·개발에서 석유제품의 정제·판매까지 一貫체제의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러나 작년말부터 시작된 原油가격의 폭락과 같은 환경하에서는 개발·설비에의 투자억제와 사업의 축소·효율화 이외에 수익확보에 효과적인 수단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

메이저는 최근 수년동안 소매업이나 사무기기등의 다각화노선을 단념하고 「本業回歸」를 염두에 둔 기업합병·매수, 인원삭감등으로 체제를 정비하여 왔다. 기업재편(restucturing)이라고 하는 體質強化策은 작년에 결심한 減産과 재고감축으로 연결되고, 제품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原油가격을 지탱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 中東產油國의 넷트백계약과 할인에 의한 판매경쟁의 확대에 따라 메이저의 정유공장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가동률을 높였다. 그 결과 歐美에 原油와 석유제품이 넘쳐흘렀다.

지난 가을부터 다시 原油의 처리를 대폭 감축할 수 밖에 없게된 메이저로서 재고를 판매함과 아울러 轉賣나 마진을 붙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現物과 先物시장의 활용이다. BP, 로얄 더치 셸등의 유럽메이저는 현물거래에 적극적이었으며, 런던의 석유업계에서는 「이미 매일 거래하는 트레이더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소리마저 들렸다.

제1線の 트레이더들은 「매매의 타이밍이 어떻게 될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어느 유럽메이저의 트레이딩 매니저는 「어제도 매매의 각제시가격이 하루에 배럴당 1.25~1.50달러씩 움직였다. 작년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큰 진폭」이라고 말했다. 賣買의 呼價는 10분이나 15분 정도면 사라지며, 리스크의 정도도 크므로 순간적으로 내리는 판단은 자금력의 승부다라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한마리의 이리와 같은 존재의 專業트레이더는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는 한편, 메이저의 거래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전에 그 룩내 기업간에서 전량을 팔아온 셀로서도 외부기업과의

매매비율이 거의 半半으로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메이저는 최근 1년여 사이에 뉴욕과 런던의 原油·석유제품 先物市場에도 일제히 참여하였다. 세계적인 자금의 여유현상속에서 투자대상으로 신규 편입, 투기색채가 강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리스크회피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情報戰術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창기적으로는 原油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언젠가 공급이 딸리게 될 것」이라고 수급상황도 냉정하게 주시하고 있다.

확실히 자유세계에서 非OPEC產油國의 原油생산·공급능력(2,600만~2,700만B/D)은 한계에 육박한 것으로 석유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有力油種인 北海브렌트를 확보하고 있는 BP로서도 「유럽에 갖고 있는 既개발油田(개발중인 것을 포함)으로부터의 생산량은 90년에는 84년 50만B/D의 절반이 될 것이다」(크라인모드 글리브슨社 예측).

엑슨의 가빈회장은 「최근 석유제품소비량의 증가분이 신규발견油田의 생산량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만성적인 것으로 보이는 수급완화현상도 메이저의 개발투자억제와 함께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증가가 계속된다면 서서히 수급균형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급여력이 있는 OPEC 증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現物시장의 활기

「J. 아론社」. 런던의 어느 原油트레이더는 약 1년전에 현물거래의 상대자로서 등장한 처음 듣는 기업에 놀란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귀금속관계자들에게는 美國의 大귀금속판매상으로서 알려져 있는 J. 아론社도 석유업계에서는 무명의 존재. 그러나 이 아론社의 등장에 놀란 것도 무리가 아니다.

「월 스트리트 리파이너리」. 이 단어가 런던의 原油현물시장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뉴욕에 있는 金融街에 본거지나 거점을 둔 신참의 去來先을 가리킨다.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토대로 原油의 先物매매를 하면서 현물시장도 활용하고 있다.

J. 아론社나 트레다스(곡물메이저인 美國의 카길社) 등 월 스트리트는 현물시장에서 빠르게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신참자들은 美國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北

해브렌트의 현물거래에는 오스트리아의 V. 알피네社, 西獨의 틱센社도 일년정도 단골이 되었다. 모두 국내에서는 정상급의 철강회사들이다.

철강회사의 原油현물시장 참여는 이란등 中東產油國과의 바터거래에서 받은 原油의 처분이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거래제나 시장의 예측에도 익숙해져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노련한 트레이더들도 인정하고 있다.

라이벌이지만 얼굴을 알아둘 기회가 있다면, 신뢰관계도 높아지고 거래에도 플러스가 된다. 신참자들의 면면이 다채롭게 되고 거래의 범위가 넓어지면 더욱 좋다. 그러한 상징적인 광경이 지난 11월초 런던에서 나타났다. 日本의 마루베니가 연 1회 개최하는 통칭 「마루베니 파티」가 바로 그것이다.

시내호텔에 저녁부터 속속 모여든 석유관계자들은 대략 150社에서 450명 정도 마루베니 상무겸 유럽지배인인 이쓰미 사쓰기씨는 성황을 이루고 있는 인파를 바라보면서 「英國을 비롯 유럽에서 모여들었다. 친목이 목적이지만, 거래정보의 교환장소가 되고 있다」고 으시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경험축적도 도움이 됐는지 지난 6월에는 北海原油의 월간 취급량에 있어서 同社가 일시적으로 1위에 올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마크리치, 피부르등의 트레이더와 모빌, 셸, 엘프 등 메이저와 같은 대열에 끼면서 日本의 상사들은 현물거래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싱가포르시장에서 6社, 런던시장에서는 9社가 진출하고 있으며, 매일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고 내외의 정세를 관찰하면서 原油거래에 열중하고 있다.

24시간의 거래추이를 日付變更線으로 구분하면, 東京에서 시작되어 뉴욕에서 끝난다. 런던은 그 중계기지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풍문이 교차한다. 日本의 상사중에서도 선두주자로 꼽히는 이또쥬상사의 CIPCO UK 대표는 「原油는 최대의 규제상품이다. 현물거래는 지역간, 油種別로 일원적인 운용·관리가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CIPCO UK는 이또쥬상사가 1982년 3월 他社에 앞서 런던에 재빨리 설립한 에너지부문의 현지법인. 스스키대표는 주요한 역할로서 자주거래, 수급조정(스와프: 油種間 거래), 東京 本社의 대리기능등 세가지를 열거한다. 自主거래란 他國間 거래이며, 日本측에서 보면, 3國間 거래가 된다. 原油·석유제품을 합쳐, 거래량은 하

루 20만배럴에 달하고 있으며, 「自主거래분이 반이상이다」고 한다. 유럽시트레이더의 독무대였던 스페인에서는 同社가 톱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현물原油는 반년내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지 않고 당장의 소요량만을 매매한다. 수급이 세계적으로 완화된 지금, 수요자들은 장기계약原油와의 가격차를 봐가면서 여유를 갖고 값싼 현물原油를 수배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현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거래량은 자유세계 전체의 5~10%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사의 제 1線시트레이더들은 「OPEC이 목표로 하는 原油의 배럴당 18달러라는 고정가격제의 성패와 관계없이, 가격변동은 또 한번 혼란이 있을 것」으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였다. 두번씩이나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최근 1년간의 急落劇을 회고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에 여념이 없다.

安定 확보 꾀하는 석유회사들

「産油國이나 메이저의 本心은 최종수요자인 우리 석유회사들과 직접 교섭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Nippon Oil UK의 대표는 최근 반년간을 꼼꼼히 회상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同社は 日本石油가 전액출자하여 금년 5월에 설립한 런던의 현지법인이다. 작년말부터 시작된 原油가격의 급락이나 금년 1월에 발표된 日本의 석유제품 수입解禁 등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原油확보를 위해 目前의 조달물량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日石의 현지법인은 뉴욕, 싱가포르와 함께 현물시장간의 제휴도 원활하게 되었다. NOUK는 日石의 舊런던支店이 개편된 것이나, 「原油거래의 계약당사자로서 신속하게 교섭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이점이다.

同社の 原油·석유제품의 조달량은 장기계약, 현물거래 합쳐서 日石전체의 10~15%를 차지하게 되었다. 美國의 칼텍스를 통한 조달량이 절반가까이 되기 때문에 自社分으로만 보면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

日本은 中東産原油의 유력한 소비국이다. 中東産油國으로서도 日本의 석유회사들은 없어서는 안될 고객이다. 전부터 「석유산업의 완전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는 出光興産은 中東諸國의 중요성에 일찍부터 착안하고 현지에

진출하여 안정조달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出光이 최근 이란과 D-D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11월부터 3개월간 2만B/D의 原油를 수입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의 현물시장에서는 이란에 장기原油를 의존하고 있는 印度가 약 반년만에 현물原油의 구입을 재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出光은 싱가포르, 런던市場의 현물거래에서도 日本의 석유회사중에서 발군의 존재. 많은 계산이 있는 것 같다.

日本의 原油수입은 産油國정부·국영석유회사로 부터의 구매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물原油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구입의 선택폭도 장기계약으로 retractive (정산을 전제로 한 後決方式), 네트백, GG, 開發原油, 현물거래로 固定 및 變動의 兩方式로 다양화하고 있다.

이 리스크의 헷지(hedge)로서 美原油현물시장의 활용책도 하나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昭和産石油과 日本産業은 내년초 참가할 예정이다. 日石의 참가도 시간문제로 알려졌다.

日本의 석유회사와 상사들은 현물原油에 비하여 값싼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등 3개국의 네트백原油의 구입을 대폭 증가시키는 한편,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는 현물原油를 대량으로 매입, 재고확충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재고확대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日石과 出光이다. 日石은 사우디의 Norbeck社가 보유하고 있는 탱커 비축原油 400만배럴의 현물구입(12월 선적)을 결정, 업체를 놀라게 했다. 이도썬상사가 중개하였으나, 「노 코멘트」라며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出光도 카타르原油를 중심으로 약 400~450만 배럴을 12월선적으로 현물구입할 예정이다. 또한 三菱상사가 12월선적으로 사우디로부터 구입하는 720만배럴의 네트백原油 가운데 약 절반이 出光의 정유공장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出光이 현재 재고확대에도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메이저의 재편(restructuring)은 아직 과도기이다. OPEC의 결속은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90일간의 민간비축의무, 原油의 처리규제등을 포함한 日本석유회사들의 가격변동에 대한 대응책은 점차 신중해지고 있다. 産油國, 소비국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구입의 선택폭이 더욱 세분화 될 것 같다. □